

감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줬으면...

글_ 이 세 현 · 감염인/가명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당사자가 감염 사실을 받아들이는 동안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감염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야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 일부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담당자와 감염인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며 감염인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신분노출이 우려되는 보건소 방문

보건소와 감염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HIV에 감염이 된 사람이라면 싫든 좋든 보건소 담당자와 인연의 굴레로 얽여 전화 상담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보건소를 방문하여 에이즈 업무 담당자를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며 자주 바뀌는 담당자로 인해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또한 보건소를 방문했을 경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담당자의 업무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은 HIV에 감염된 사람일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감염인의 보건소 방문은 그리 유쾌하지 못한 일이다.

감염인의 보건소 방문은 감염인의 비밀보장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보건소

담당업무를 하시

는 분은 평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

만 감염인 입장에

서는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염인에

대한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보건소 방문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이다.



차별화된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교육 필요

에이즈에 대한 예방 홍보 교육은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은 잘 되지 않고 있어 감염인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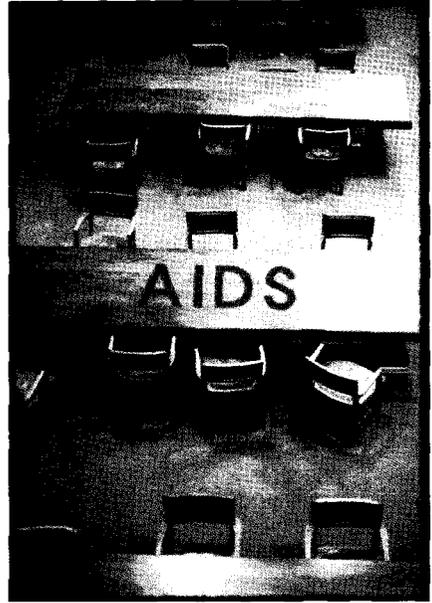
HIV에 감염된 이후 인터넷이나 보건소 방문 시 책자를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찾기란 힘든 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감염인 중에서 보건소 담당자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전해 듣고 기본적인 역학조사 이후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행위를 절대하지 말아야 하며, 신변의 변동 사항이 있을

보건소를 방문하여 에이즈 업무 담당자를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며 자주 바뀌는 담당자로 인해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또한 보건소를 방문했을 경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담당자의 업무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은 HIV에 감염된 사람일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감염인의 보건소 방문은 그리 유쾌하지 못한 일이다.

경우 알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감염인을 구속할 뿐 감염인의 인권 및 감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감염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HIV 감염인 교육은 성별 연령 직업 기혼 미혼 그리고 성접촉 또는 수혈 및 기타 감염의 경로에 따라서 차별화된 교육을 해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야 하는 감염인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HIV 감염인 교육의 발전방향

매년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람은 늘어만 가고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일반인들에게 에이즈 예방 홍보도 좋은 효과를 얻고 있지만 이미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 살아가는 감염인을 교육하는 것이 에이즈 예방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동병상련이라 했던가?

에이즈 감염인 동료 상담을 하면서 많은 동료들에게 자주 듣게 되는 말은 보건소 담당자에게 열지 못한 마음을 같은 질병을 갖고 있으며 자신을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동료에게는 편안함을 느껴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 좋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염인을 교육하는데 누가 가장 적합할까?

첫째, 에이즈 전문 상담 교육을 받은 동료 감염인을 적극 활용하여 보건소에 상주하여 감염인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보건소 에이즈 업무 담당자의 수시 교체를 줄이고 에이즈 전문 교육을 직접 받고 감염인을 상담한다면 감염인 입장에서 한 사람과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신의 감염 사실을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지 못하며 도움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사람을 위한 자조모임이다. 자조 모임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교환 및 교류함으로써 에이즈 교육 및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